

정치 관용 비판*

- 다문화주의에서 관용의 탈정치화 -

김선규**

주제분류 정치철학, 윤리학

주요어 관용, 탈정치화, 타자성, 자율성, 문화

요약문

이 논문은 Wendy Brown의 *Regulating Aversion: Tolerance in the Age of Identity and Empire*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적 수사(rhetoric)로서 관용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타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관용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관용이 실천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관용의 정신이 이상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관용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관용은 타자에 대한 전적인 수용이 아니라, 거부의 수용임에도 그것이 ‘도덕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따른다는 비자발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관용의 실천에는 부정적인 면이 내재되어 있는데, 특히 암묵적인 차별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관용은 타자의 다름을 ‘표지(標識)’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관용이 정치적으로 오용될 경우, 단순하게 차이를 묵인할 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타자를 향한 적대 행위를 줄이고, 모든 차이를 존중하자고 표출되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지배와 우월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은 관용이 억압적인 방식으로 타자성(otherness)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에 관하여 철학적 분석을 수행한다.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8A01053851).

** 중앙대학교

1. 들어가며

“차이를 존중하라”라는 구호로 표현되는 관용은 다원화된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층간소음, 애완동물로 인한 문제가 확대되어 최악의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관용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또한 종족갈등, 인종분쟁과 같은 충격적 사건들이 발생한 이유를 불관용에서 찾기도 한다. 삶의 많은 문제들이 관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바로 그 때문에 관용은 갈등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게다가 확장일로에 있는 세계화는 문화적 타자와의 만남을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용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의미에서 ‘타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관용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관용이 실천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관용의 정신이 이상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관용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주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관용은 타자에 대한 전적인 수용이 아니라, 거부의 수용임에도 그것이 ‘도덕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따른다는 비자발적인 행위이다.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관용한 것이 아니고, 전혀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거부일 뿐 관용이 아니다. 관용에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거부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용납하거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관용의 역설” 즉 모순적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¹⁾ 이러한 측면 때문에 관용은 우리에게 일관된 원리가 아니라 잠정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일관된 원리가 아니라는 것은 관용의 한계를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1) 김용환, 『관용과 열린사회』, 철학과 현실사, 1999, 68쪽.

견이 있을 수 없으나, 이의 구체적 한계는 불명확할 수밖에 없다. 또한 무한정 관용을 인정하면 그것은 악을 방종하는 문제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따라서 관용의 실천에는 부정적인 면이 내재되어 있는데, 특히 암묵적인 차별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관용은 타자의 다름을 ‘표지(標識)’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²⁾ 서구사회에서 이슬람교도들을 대할 때, 또는 미국이 중동에 대한 강압적 헤게모니를 작동시킬 때, 관용은 오히려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관용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W. 브라운이다. 그녀는 관용이 정치적으로 부정의와 불평등을 교묘히 은폐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서구의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 마디로 그녀는 “관용이 권력과 무관하다고 믿는 우리 눈의 콩각지를 제거”³⁾함으로써 정치적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관용의 권력적 문제를 드러내려고 한다.

이 글은 브라운의 저서 『관용』⁴⁾에 드러나고 있는 관용의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관용의 문제점을 밝히는 것이 관용의 실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관용은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덕목임에 틀림없으며, 타자를 존중하는 표현의

2) 일상에서의 관용이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 관해서는 장은주, 「관용: 분열 사회 치유를 위한 쉽고도 어려운 처방」, 철학과 현실, 2004. 12, 112쪽 참조.

3) 브라운, W., 이승철 옮김, 『관용』, 갈무리, 2010, 33쪽(이후로는 본문 내 괄호 속에 쪽수만 표기함). 이런 점에서 브라운의 ‘관용’은 독특한 위상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관용에 관한 논의는 개인의 덕목이나 개인적 실천을 다루고 있으나, 그녀는 개인윤리가 아닌 정치적 담론에서 관용을 고찰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논의는 1960년대에 마르쿠제가 ‘억압적 관용’이라는 표제어에서 관용이 억압적 현상상태를 유지하는 지배자의 도덕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이에 관해서는 김용환, 앞의 책, 69~70쪽 참조).

4) 이 책의 원제는 “Regulating Aversion: Tolerance in the Age of Identity and Empire”, 즉 “혐오 관리”이다. 그러나 원제는 마치 혼란 내면 관리 서적처럼 오인될 수도 있다. 번역자가 책의 제목을 “관용”으로 택한 것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관용이 정치적으로 오용될 경우 단순하게 차이를 묵인할 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타자를 향한 적대 행위를 줄이고 모든 차이를 존중하자고 표출되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지배와 우월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 그녀가 최근의 이러한 사례로 드는 것은 오바마의 당선이다. 미국 대선 당시 흑인 오바마의 당선은 미국이 추구하는 “관용의 승리”라는 이름으로 찬양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관용의 이름으로 흑인의 종속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흑인들은 이 승리를 관용한 백인들의 미국에 다시 종속되었다(8~9참조). 그러나 오바마의 당선은 관용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평등의 문제이다. ‘평등의 옹호’라는 관점에서 봐야 할 것을 ‘관용의 승리’라고 찬양하는 것은 결국 다수의 백인들이 흑인에게 시혜를 베풀었다는 우월감의 재확인 작업이다. 관용은 은밀하게 인종주의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교묘히 감추기도 한다. 관용의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 고찰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내에서의 관용담론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5)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미리 밝히는 것은, 이 글이 이슬람의 지하드가 정당하다거나 반대로 미국의 군사적 이슬람 대응책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논의는 분명히 중요하고 학술적 가치가 있는 논의일 수 있으나, 이 글의 주제와는 관련이 없다. 즉 이 글은 ‘정의로운 전쟁이란 가능한 것인가’, 내지는 ‘어떠한 폭력이 정당할 수 있는가’ 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의 미덕으로 생각하는 관용이 정치적으로 활용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부작용을 드러내는지 철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미래 어느 시점 발생할지도 모르는 또는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의 이면(裏面)에 포함될 수도 있는 부정적 기제로서의 관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자는 것이다.

2. 관용의 확산과 탈정치화

레이건 시대까지 자유주의의 가장 큰 화두는 자유와 평등이었다.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국가는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이념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주의보다 우월한 체제임을 주장하는 것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고 세계화와 제 3세계로부터의 이민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자유주의 담론은 관용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브라운은 이러한 상황을 “관용 담론의 세계적 르네상스”(18)라고 부른다. 특히 1991년에서 2000년까지 연이어 발생한 유고슬라비아 전쟁⁶⁾과 1994년의 르완다 내전은 관용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브라운에 따르면, 관용 담론의 세계적 확산은 좌파와 우파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좌파는 통합이나 동화보다는 정체성과 차이의 문제를 부각시키려했고, 우파는 다양한 소수자들의 권리 요구를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것으로 축소시키려고 했다. 그 결과 좌우진영을 가리지 않고 관용 담론은 확장되었다(19참조). 브라운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부시(G. W. Bush)정부 이후로 벌어지고 있는 대테러전쟁을 정당화하는 관용담론이다. 그녀에 따르면, 부시 정부는 관용담론 속에서 미국은 관용을 사랑하지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관용을 증오한다고 주장한다(20참조).⁷⁾ 이러한 방식의 관용은 타자를 이해하지는

-
- 6) 유고슬라비아 전쟁은 세르비아계와 타민족 간의 갈등 때문에 발생하였으며, 유고슬라비아 연방군이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막기 위해 슬로베니아를 침공함으로써 시작되어,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코소보 등지로 전쟁이 확장되었다.
- 7) 브라운과 유사한 방식으로 프랑스의 관용 담론을 분석한 스코트는 허잡의 착용을 금지하는 주장 속에 프랑스식 공화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신화와 이슬람에 대한 인종주의적 환상이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한다(Scott, J. W., *The Politics of the Veil*, Princeton Univ. Press 2007, 7쪽).

본래적 의미가 아니라, 특정한 정치 담론을 구성하면서 사회적·정치적 효과를 낳고 있다. 그런데 관용의 정신과 정치적 효과간의 차이는 관용이 논의되던 맥락이 변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과거 종교개혁 시기에 관용은 소수의 믿음과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했으나, 1990년대 말 이후의 관용은 주로 보호보다는 다문화적 시민권에, 믿음의 문제보다는 정체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관용이 활용되는 맥락의 변화를 브라운은 ‘갈등을 중재하는 도구’에서 편견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던 용어인 ‘사회적 이상’을 담은 문구로의 변화라고 주장한다(24). 즉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대안’이었던 관용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공통의 ‘이상’으로 격상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관용은 변형을 겪게 되면서 순전히 개인적 실천의 덕목으로 여겨졌으며, 정치와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었다⁸⁾.

오늘날 관용은 하나의 정신적인 미덕으로서 추천되지만, 어떠한 법률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 1조에 관용을 암시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있으나⁹⁾, 실제로 관용이라는 문구는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 어디에도 ‘관용’이라는 문구는 없다. 이러한 점은 과거 종교개혁 시기에 구체적인 칙령이나 공식적 선언으로서 관용을 강제하는 것과 현재의 관용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훨씬 복잡해진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관용의 적용 폭을 설정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
- 8) 서구의 역사에서 로마제국 이래로 종교개혁시기를 제외하면, 관용은 개인적 자유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종교집단(밀레트)에 대한 관용으로 표출되었다. 그리고 밀레트제도의 특징은 종교에 기반하여 정치와 법의 집행에서 상당한 자유를 누려왔다. 밀레트가 보여주는 이러한 점은 개인의 관용에 기초하고 있는 프로테스탄트의 관용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9) 수정조항 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중국의 회의는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행위를 금지하거나, 언론 또는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조용히 집회하고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정부에 청원하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서구사회 내지 서구화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관용은 개인의 내재적 미덕, 자발적 미덕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오늘날 관용은 “법 때문에” 베푸는 것이 아니라, “법에 추가하여” 베푼다(36).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일반적으로 법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관용은 정치와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37). 이러한 방식으로 관용은 탈정치화 된다.

그러나 관용은 사적인 것으로 탈정치화 되는 동시에 특별한 공동체의 정치적 담론을 역설적으로 형성한다. 개인윤리에서 관용이 불쾌함을 유발하는 것들을 묵과하거나 용인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공동체의 담론에서 관용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즉 관용이 사회적·정치적·문화적·종교적 담론과 결합하게 되면, 관용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관용을 베푸는 이들에 비해 열등하고 주변적이며, 비정상적인 이들로 표지되는 동시에 상대가 관용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될 경우 부과되는 폭력 행위를 사전에 정당화한다(38참조). 더 나아가 관용은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 이상으로 특별한 정체성을 ‘생산’함으로써 문화를 민족 혹은 인종과 뒤섞고, 믿음과 신념의 문제를 유전적 형질과 결합하는데 일조한다. 그러면서도 관용은 이러한 정치적 담론 자체를 탈정치화함으로써, 정체성 자체를 관용의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구성한다(38참조).

관용의 탈정치화는 이런 식으로 불평등, 주변화, 구별 짓기의 문제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지 개인적인 문제로 제한함으로써 비공식화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관용에 의해 야기된 문제들은 정치적인 해결책을 필요로함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정치와는 무관한 문제처럼 인식되곤 한다. 결국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개인이나 집단의 편견 정도로 치부해 버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단지 상이한 정체성 간의 마찰로 환원시키고, 종교적·민족적·문화적 차이가 그 자체로 갈등을 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은 자연화naturalization 되고, 정치적으로 생산된 정체성들은 존재론화ontologization된다(40참조).

따라서 차이는 해소될 수 없는 정체성의 차이로 고정되어 버린다.¹⁰⁾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정체성이 사회적·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권력, 헤게모니적 규범 그리고 특정한 담론의 산물이라는 사실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이미 자연화되어 버린 정체성은 단지 관용의 대상으로 여겨질 뿐이다. 결국 정치적 문제의 원인인 정체성이 관용과 결합하면서 탈정치화되기 때문에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한다.¹¹⁾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용의 정의(定義)와 정치적 담론으로서 관용이 어떻게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3. 관용의 정의와 실제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관용의 어원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라틴어 ‘tolerare’라고 밝힌다. 이 사전은 관용의 윤리적, 정치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의한다. 첫째, 고통이나 곤경을 견디는 행위. 둘째, 무언가를 허락하는 행위, 특히 권위 있는 자의 인정이나 승낙. 셋째, 타인의 의견이나 행동을 관대하게

10) 관용이 정체성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은 4장 이후에서 세부적으로 다룬다.

11) 킨리카는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다문화국가에서 형식적 평등이 추구하는 것은 다수자·다수인종·다수민족의 이익과 관심만을 대변할 뿐이며, 소수자들의 권리와 이익에는 진정한 관심이 없다고 비판한다. 자유주의자들은 중립적인 선의의 무관심 등을 통하여 소수자의 정체성을 특별하게 고려하지 않으므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킨리카는 그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제도는 다수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제시하는 대표적인 것은 공휴일의 지정, 공식 언어의 선정, 국가 상징물에 대한 결정 등이다. 미국은 국교를 부정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공식적으로 표방하지만, 실제로 많은 공적 제도는 기독교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해져있다. 킨리카에 따르면, 이는 사실상 비기독교인들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며, 자유주의의 근본정신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다(킨리카, W., 장동진 외 3인 옮김, 『다문화주의 시민권』, 동명사, 2010, 228쪽 참조).

수용하는 태도이다(58~59참조). 이러한 정의들은 관용이 대상이나 타인에 대한 존중이나 중립적 태도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관용은 경멸, 혐오의 감정을 갖고 있으나 이를 주체가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 우리말에서도 관용을 “배푼다”라는 표현에서 보이듯 그것은 주체의 탁월한 ‘능력’을 전제하고 있다.

관용이 능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이 용어의 다양한 전문적 용법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식물 생리학에서 내한성drought tolerance이나 내음성shade tolerance은, 식물이 어느 정도의 물 부족 혹은 햇빛 부족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약학에서 내성tolerance은, 약이나 장기이식과 관련해 신체가 이질적인 요소나 독소를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지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인체 생리학에서 사용되는 내알콜성alcohol tolerance은, 위협적인 요소들을 흡수하고 처리하는 신체의 능력을 의미한다. 통계학에서 허용한계tolerance 개념은, 그 통계적 결과를 기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오차 범위를 의미하며, 미국과 캐나다에서 마약이나 가정폭력과 같은 허용할 수 없는 범죄들의 예방책을 ‘무관용zero tolerance정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용법들 속에서 관용은 낮설고 위험한 요소가 자신의 주인/숙주를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공존 가능한 한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60~61참조). 그러나 자유주의의 관용 담론에서 내성으로서의 포용력은 단순히 능력을 보여주는 척도가 아니라 하나의 미덕으로 격상된다(300). 이러한 과정을 ‘능력’과 ‘미덕’의 단순한 일치로 이해할 경우, 그것은 관용의 정치적 효과를 간과해 버리고 만다.¹²⁾

12) 서구에서 종교의 자유가 확립된 이후, 관용은 일반적인 도덕적 명령으로 여겨졌다. 관용은 17세기 이래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확립과 연계된 사회계약론의 정당화를 위한 사회구성원의 덕목으로 인식되었다. 실제로 이 당시에 관용은 ‘동등한 개인들 간의 권리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현재 정치적 영역에서 관용은 동등한 개인들의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시혜의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김문정, 「다문화사회와 관용, 그리고 비지배자유」,

현실에서 관용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지만 많은 경우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는 차이를 포용하는 덕이라기보다는 차이로 인해 야기되는 위협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관용은 타자의 타자성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타자성 관리 방식이다. 관용은 동화·흡수와 배제·부정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관용의 대상은 동화와 흡수처럼 전체의 내부로 편입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여전히 배제와 부정으로서 표지된 채 남는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말하지 않으며, 억압적으로 참는 것 이외에는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을 경우에 보이는 태도도 관용이라기보다는 종속이나 억압이다. 동화와 배제의 중간인 관용은 기본적으로 “선택과 역량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65) 관용은 수용될 수 없는 타자성에 대한 주체의 관리를 의미한다. 즉 관용이 실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질적이고 위협적인 특성은 여전히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인지된다. 한 마디로 “관용에는 지양이 없다.”(58)¹³⁾ 관용은 수동적인 시민상(像)을 옹호하며 우리의 사회적 삶을 서로에 대한 혐오를 제어하려 애쓰는 고립된 개인 또는 집단의 상호작용으로 축소시킨다(150참조). 관용은 증오를 해소하기보다는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미봉책일 뿐이다(151참조).

결국 관용이 차이에 대한 적대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관리할 뿐인 한, 많은 경우 관용은 사실상 자발적으로 실천되기보다는 강제적으로 요구되어진다. 그 결과 관용을 실천하도록 종용받는 이들은 시민윤리와 평화, 진보라는 이름하에 적개심과 분노를 자발적으로 억제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관용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사람은 배제를 통해

『철학논총』 83, 2016. 1, 38~39쪽 참조.

13) 관용은 개인들 간의 윤리만이 아니라, 집단과의 정치적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자유주의에서 문제가 되는 관용은 이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함으로써 정치적 맥락을 아예 단절시키는 것에서 발생한다. 이에 따라 변증법적 지양의 관계가 소멸되어 버린 정치적 관계는 발전적인 관계로 개선될 수 있는 소지가 애초부터 봉쇄되어 버린다.

발생하는 원인과 자기-비하를 낳게 되며, 억지로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억압된 공격성을 쌓아간다. 브라운은 오늘날 자유주의적 다문화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종·민족적 갈등의 중요한 원인으로 관용을 지목한다(64참조). 왈쩌가 주장하듯이 관용에 대한 옹호가 반드시 차이에 대한 옹호는 아니다. 오히려 “불가피한 선택”¹⁴⁾일 수 있으며, 실제로 관용이 필요한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브라운이 주장하는 다문화사회의 관용은 왈쩌가 주장하는 관용과도 차이가 있다.

왈쩌는 다문화사회에서 다양한 집단들을 관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하여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16~17세기의 종교적 관용의 기원을 반영한 것으로서 평화를 위하여 체념적으로 차이를 용인하는 것. 둘째, 차이에 대하여 수동적이며 완화되고 자비로운 무관심. 셋째, 도덕적 스토아주의의 표현으로서 “내게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타인은 그의 권리를 행사할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원리화하는 방식. 넷째, 타인에 대한 열린 태도. 여기에는 타인에 대한 존경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다섯째, 차이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태도이다.¹⁵⁾

왈쩌와 브라운의 관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왈쩌는 윤리적 차원에서 관용을 논의했으나 브라운은 정치적 차원에서 관용을 논의한다. 물론 일견 보자면 브라운이 말하는 관용은 왈쩌가 말하는 첫 번째의 체념적 용인과 비슷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여기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왈쩌가 말한 근대의 종교와 연관된 관용은 현재의 자유주의의 관용과 다르다. 왜냐하면 브라운은 자유주의에서 종교적 문제로부터 기인한 관용이 현재에는 종교적 맥락에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맥락 자체가 변화했다는 점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14) 왈쩌, 송재우 옮김, 『관용에 대하여』, 미토, 2004, 9쪽.

15) 왈쩌, 같은 책, 27-28쪽 참조.

4. 자율과 관용

4.1 관용과 종교

잘 알려진 것처럼 서구에서 종교문제 때문에 관용을 정당화한 사람은 로크이다. 그러나 그는 단지 종교적 관용만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왕위 계승 문제를 종교적인 문제와 연관하는 것도 비판하였다. 즉 그는 정치와 종교를 구별할 것을 주장하였다. “교회와 국가(정치)의 경계선은 고정되어 있으며,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이 두 사회를 섞어놓는 사람은 심지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서로 다른 것을 뒤섞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거의 관계가 없으며 심지어는 반대되는 것을 뒤범벅으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¹⁶⁾라고 로크는 말한다. 종교는 사후의 영생에 대한 기대감으로 모인 자율적인 사회인 것에 비해, 국가는 현재의 이익을 보존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구성된 사회로서 “생명, 자유, 건강, 신체의 편안함과 돈, 토지, 가옥, 가구 등과 같은 외적인 소유”¹⁷⁾를 평등한 법을 통해 보장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종교를 정치와 분리함으로써 로크는 종교적 믿음을 개인화한다. 그래서 로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은 모두 각자에게 속하는 일이고 따라서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맡겨져야 한다”¹⁸⁾고 주장한다. 결국 로크에 의해서 종교는 공동체 내의 신앙인에서 개인적이고 사적인 신앙인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로크에 따르면, 속세의 재산은 출생으로 인해서 자식에게 상속되지만 교회의 구성원으로 되는 것은 자발적인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종교는 자유롭고도 자발적인 사회이다.¹⁹⁾ 로크의 종교 개인화는 1세기 뒤, 프랑스의 볼테르에게 커다란 영향

16) 로크 J., 최유신 옮김, 『관용에 관한 편지』, 철학과 현실사, 2009, 78~79쪽.

17) 로크, 같은 책, 59~60쪽.

18) 로크, 앞의 책, 83쪽.

19) 로크, 같은 책, 65쪽 참조.

을 끼쳤다. 볼테르는 『관용론』에서 영국의 카톨릭교도들은 다른 어느 신교 국가에서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²⁰⁾고 보았으며, 영국의 국교를 주제로 다룬 『철학서한』 제 5편지에서 “영국 사람은 자유인으로서 자기 마음에 드는 길을 택하여 천국에 간다”²¹⁾라고 말하였다. 볼테르는 1762년 3월 9일 툴루즈 시의 재판정이 행한 장 칼라스의 사형²²⁾을 프랑스에서의 종교가 사적인 것, 다원화되어야 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한다.²³⁾

그러나 근대 영국에서 진행된 종교의 개인화를 통한 관용은 역설을 만들었다. 즉 믿음이나 신념은 공공의 삶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공유된 진리의 위치도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다.²⁴⁾ 공동체 내의 다양한 믿음들은 이제 그 믿음이 어떤 공적인 중요성도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다(69참조). 믿음에 관한 것은 중요하고 심오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차원에만 한정되어 영유

20) 볼테르, 송기형·임미경 옮김, 『관용론』, 한길사, 2001, 69~70쪽 참조. 볼테르는 『철학서한』 제13편지에서 로크 이상의 논리적인 인물은 없을 것이라고 그를 칭송하고 있다(Voltaire, *Short Studies in English and American Subject*, Vol. XIX, part II, College of Du Page Instructional Resources Center, 1901, 33쪽 참조).

21) Voltaire, 같은 책 212쪽.

22) 신교도인 68세의 아버지 칼라스가 20대의 아들을 죽였다는 죄명으로,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갈등 때문에 다수의 카톨릭교도들이 칼라스를 수레바퀴에 매달아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열형을 집행하였다.

23) 볼테르는 『철학서한』 제6편지에서, 영국에 한 종교만 있었다면 그 횡포가 무서웠을 것이며, 두 개의 종교가 있었다면 서로 목을 잘랐을 것이지만, 매우 많은 종교가 있으므로 행복한 평화 속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Voltaire, 같은 책, 218~219참조).

24) 로크는 경험을 통한 개념의 확립으로서 정당한 지식knowledge과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동의assent를 구분함으로써 인식적으로 동의는 주관적 확신의 차원으로 제한되고, 종교는 동의에 기초한 믿음의 차원이 된다. 이는 종교적 진리가 불확실하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제한된 정부를 주장하는 로크에 따르면, 정부는 종교적 믿음을 강제할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고, 종교에 관해서는 관용이 정당화된다.

되어야 한다는 역설은 동시에 관용 또한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적 가치로 제한시켜 버렸다.²⁵⁾ 이러한 변화는 일체의 개인의 믿음과 관련된 것을 정치적인 것과 분리하면서 사적이고 개인적인 의미로 바꾸어버렸다. 그래서 브라운은 이제 “정치 도덕” 또는 “도덕 정치” 같은 개념은 형용모순이 되었다고 주장한다(70). 이 과정에서 정치적 삶에서 공동체의 위상은 급격하게 축소되고 공동체가 발휘하는 영향력의 기반이었던 믿음의 영역이 개인화됨에 따라 공동체는 더 이상 정치적 삶에서 기존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왈쩌도 종교에서 정치가 분리되는 과정을 브라운과 유사한 방식으로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근대 정치제도에서 정교 분리의 핵심은 독단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정치와 종교의 권력이 모두 비관용적이기 때문에 종교가 정치권력까지 가지게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종교의 비독단화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종교의 관용은 확립될 수 있었다. 또한 정치는 민주제를 통하여 한 정치집단이 영속적으로 권력을 누릴 수 없었으며, 자신들의 강령을 법률화로 명시할 수는 있어도 종교처럼 공적 신조로까지 변경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관용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²⁶⁾ 이러한 분석에 따르자면, 왈쩌는 관용이 정치적인 영역까지 확장되는 것에 주목했던 반면, 브라운은 믿음의 영역에서 정치가 분리되고, 개인화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위의 역사적 탐구의 결과는 현재 모든 인류가 추구해야 할 이상처럼 받아들여지는 관용이 특정한 역사적 맥락과 연결되어 있으며, 많은 이들이 쉽게 간과하는 역사적 사실을 새롭게 상기시켜준다. 메이플라워호를

25) 브라운은 로크의 이러한 주장이 당시에 매우 급진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교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마녀사냥이 자행되던 당시의 상황에서 로크의 입장은 어떤 종파의 입장보다도 부합하기 힘든 것이었으며, 따라서 어느 누구도 만족하기 힘든 주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은 해결 불가능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실용적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졌다(브라운 70쪽 참조).

26) 왈쩌, 앞의 책, 149~151쪽 참조.

타고 아메리카로 건너간 이들은 불관용적인 구세계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관용의 질서를 신세계에 확립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뉴잉글랜드에 세워진 초기 정착촌은 매우 교조적인 공동체였다.²⁷⁾ 영국 내에서도 크롬웰을 위시한 청교도들은 매우 불관용적이었으며, 정교의 분리도 반대하였다. 미국의 기원이 종교의 관용을 찾기 위한 목숨을 건 출발이었다는 점은 실제로 그들이 보여준 비관용적 태도를 충분히 감출 수 있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미국적 관용의 역사에는 특정한 역설이 존재한다는 점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즉 종교적 관용에서 출발하여 추후에 다양한 분야로 확대된 미국적 관용은 절대적 원리들의 충돌에 대처할 필요성 때문에 등장한 원리이며,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반원리antiprinciple라는 역설이다. 이는 자신의 광적인 믿음을 관용받기 위해서 다른 종파의 광적인 믿음을 관용한 것이다. 따라서 관용의 필요성은 절대적 원리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임시적인 처방책에 불과했다. 그러나 임시방편적인 관용의 원리는 종교를 개인화한 로크의 사상이 전파된 이후에는 로크의 사상에 밀려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4.2 관용과 집단 정체성

20세기 후반에 부활한 관용담론은 개인보다는 집단에 대한 담론으로 부각되었다. 개인의 자율성에 기초한 기존의 관용과 달리, 특정한 인종적·민족적 속성에 의한 실천과 믿음에 관용이 적용되면 집단의 문화나 속성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기존의 자유주의 관용담론을 유지해온 개인의 자율성이라는 가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73 참조). 자유주의는 관용의 주

27) 식민지 시대에 세워진 가장 오래된 하버드대학의 원래 교육목표는 청교도의 정신을 확장하는데 기여하는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샌들, M., 이창신 옮김,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09, 269쪽 참조). 이러한 점은 그들이 고향 땅에서 좌절되었던 종교적 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열망했으며, 동시에 그만큼 그들이 종교에 경도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김형인, 『미국의 정체성』, 살림, 2003, 58쪽 이하 참조).

체가 개인이며, 이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제 현실에서 부딪치는 관용의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되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개인들이 특정한 소수 집단의 사람들을 관용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자율적 개인과 대비되는 특정한 집단의 정체성은 더욱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관용하는 이들’과 ‘관용되어야 하는 이들’로의 구분이 강화된다(86참조).

이러한 변화는 근대의 종교적 믿음에 적용되는 관용과 20세기 후반의 정체성에 적용되는 관용이 근본적으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인 메커니즘이 그 속에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교적 믿음은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여겨지는 반면, 정체성은 이미 주어진 것이자 변형 불가능한 것 혹은 주체에 이미 각인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과정에서 관용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특정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인물로 배제되어 주변화 된다. 자유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평등이 동질성에 기초한 원리라고 한다면, 관용은 차이에 기초한 것이며,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평등이 제거하거나 축소할 수 없는 차이들을 관리”(75)하는 데 있다. 특히 미국의 자유주의는 특정한 문화·종교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정하기 때문에 특정한 인종·민족의 문화 및 종교와의 연관성을 자신들의 법적 논리로 해결할 수 없었고, 다만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용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관용은 특정한 집단이 평등을 누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때, 이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부당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데에 활용된다. 예를 들어 9/11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자유주의의 수호를 명분으로 아랍계 미국인들을 강압적으로 별도 관리하였다. 또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관용과 달리 특정한 인종·민족 집단의 정체성에 적용되는 관용은 대상을 비하하면서 자신의 우월성을 강화한다. 서구 사회는 자신들의 우월성을 관용을 통해서 정당화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분리할 수 없는 삶의 근본적인 것으로 여기는 비서구 사회를 반문명사회로 규정

하면서 서구의 도덕적 우월성과 비서구에 대한 서구의 폭력을 정당화한다. 서구사회는 관용을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간주하면서 스스로를 문명의 전도사로 자처하는 동시에 해방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비서구사회를 향한 전쟁을 정당화한다(77참조). 이러한 서구의 우월성의 배경에는 자율성과 문화의 연관성이 내재하고 있다.

4.3 자율성과 종교·문화

현실에서 관용은 개인적 차원에서 상대보다 우월함의 표현으로 종종 나타난다. 이러한 우월함이 정치적인 것으로 집단화되어 표방된 것이 서구의 우월함에 대한 주장이다. 이들은 서구사회를 자유주의와 등치시키고, 비서구—특히 중동의—사회를 비자유주의와 동일시한다. 여기서 비자유주의 세계는 이미 자유화된 서구에 의해서 문명화의 시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비하된다.²⁸⁾ 서구사회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관용을 활용한다. 이들에게 관용은 서구사회만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이다. 관용의 고유성을 확립하기 위해 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서구 자유주의 세계의 사람들은 문화를 ‘소유’하지만 비자유주의 세계의 사람들은 문화에 ‘지배’되고 있다. 또는 “우리 문명은 민주주의이지만, 그들의 문명은 문화이다”(245)라는 이분법을 확립한다.

이 이분법은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 대(對) ‘문화’라는 대립구도의 가정 하에서 자유주의 없이는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도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245참조). 자유주의는 문화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서 개인적 자율성을 확립할 수 있는 사회이지만, 비자유주의는 문화에 종속되어 있는

28) 밀(J. S. Mill) 또한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 밀은 모든 비유럽 사람들에 대해 만약 그들의 삶이 훨씬 더 개선되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외국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주장했다(Mill, J. S.,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Utilitarianism, Liberty, Representative Government*, ed. Action, H. J. M. Dent, 1972, 140쪽 참조). 이러한 밀의 주장은 그가 『자유론』에서 주장한, 타인의 복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도 그를 간섭할 수 없다는 생각과 모순된다.

열등한 사회로 여겨진다. 그런데 자유주의는 암암리에 인간이 원자적 존재이며, 상호경쟁적인 존재라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데카르트 이래로 유지되어 온 이성을 역사·문화라는 비이성적인 것들로부터 분리하려는 ‘정신의 형이상학’에 기초하고 있다. 이성은 문화적 장소를 초월하며, 이로써 합리적 사유와 특정한 믿음을 분리한다. 결국 자유주의 담론은 합리성을 문화·정체성과 분리함으로써 자신의 사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귀속적 특성들은 주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배경’에 불과하다(247참조). 즉 자유주의는 ‘이상적인 개인’을 설정함으로써 자율적인 주체를 정당화한다.

자율적 주체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그에 따르면 성숙한 인간은 “다른 이의 지도 없이 스스로 지성을 사용”²⁹⁾한다. 따라서 합리적 주장과 비판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은 개인의 자율성의 증거이다. 이에 반해 미성숙한 인간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지도 않는 존재이다. 미성숙한 존재들에게는 문화와 종교가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이들은 문화와 종교에 종속되어 있다. 반면 성숙한 주체들에게 문화와 종교는 출입이 자유로운 하나의 배경일 뿐이며, 주체를 구성하는 요소라기보다는 주체에 외부적인 요소이다(248참조). 자유주의사회는 자율적인 주체들로 구성된 사회이며, 이 주체는 과거에 문화와 종교가 차지했던 자리에 스스로를 위치시킴으로써 문화와 종교를 자신의 선택 가능한 ‘대상’, 특정한 ‘삶의 방식’으로 간주한다. 결국 자유주의의 자율적 주체는 문화와 종교의 영향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이며, 비자유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은 여전히 문화와 종교에 의해 속박되어 있는 비자유인이며, 주체로서의 정당한 지위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율적 주체에게 문화와 종교는 자율적 결정을 위

29) 칸트, I., 이한구 편역,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칸트의 역사철학』, 서광사, 1992, 13쪽.

한 참고자료³⁰⁾에 불과한 반면, 비자유주의의 사람들에게 문화와 종교는 복종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이제 자율적 주체들은 독단적인 문화와 종교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타자에 대해서도 비독단적인 방식으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주체로 설정된다. 반면에 문화와 종교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자들은 관용을 모르는 자들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자율적 주체와 관용하는 주체는 자유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구성원으로 여겨진다.

5. 개인주의와 탈정치화

5.1 개인주의와 초문화

자유주의 내에서 자율적 주체와 관용의 주체는 동일하다. 왜냐하면 문화와 종교에 매여 있는 사람은 자율적이지 않지만, 문화와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므로 관용을 베풀 수 있다고 주장되기 때문이다. 반면, 비자유주의의 주체는 여전히 독단적인 문화와 종교에 매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관용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논리를 따르자면 관용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자유주의화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개인주의 문화는, 집단 정체성에 대한 집착과 인종주의를 녹일 수 있는 유일한 용해제이다. ... 관용은 사람들이 그 자신과 타인을 한 명의 개인으로 바라보도록 가

30) 부시(G. W. Bush)가 이라크 전쟁에 관하여 아버지와 상의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힘을 필요로 할 때 상담하는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에게 좀 더 위대한 아버지가 있지요.”(우드워드, B., 김창영 옮김, 『공격 시나리오』, 따뜻한 손, 2004, 94쪽) “또한 나는 미국이 자유의 횃불이라고 믿습니다. ... 자유는 미국이 세계에 가져다 준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우드워드, B., 같은 책, 88쪽) 이런 부시의 말이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주체의 개념과 어울리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르칠 때에만 가능하다”³¹⁾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자유주의 질서에는 두 가지 특수한 자율성이 존재한다. 첫째, 주체는 문화로부터 자율성을 가진다. 즉 주체는 문화에 선행하며, 문화를 선택할 수 있다. 둘째, 정치는 문화로부터 자율성을 가진다. 즉 정치는 문화보다 상위의 심급이며, 문화로부터 자유로움을 의미한다(269참조).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필요하다.

윌리엄스는 ‘문화’라는 개념이 엄밀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대략 네 가지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밝힌다. 첫째, 경작을 의미하는 어원 culture와 연관된 물리적 의미. 둘째, 인류의 지적·정신적·미학적 발전을 뜻하는 문명과 유사한 의미. 셋째, 보통 특정한 시기 한 집단의 삶의 양식을 의미하는 인간학적 의미. 넷째, 예술적·지적 유산이나 행위 전반을 일컫는 말이다. 그럼에도 그는 이러한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강변한다.³²⁾

자유주의 사회는 문화를 개인이 선택하고 사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하나의 ‘객관화된 재화’처럼 여긴다. 그런데 자유주의 사상은 비문화적 주체를 전제하면서도 이 전제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꺼려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문화의 사유화를 완전히 승인하게 될 경우, 자유주의의 공공의 삶이 매우 빈곤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문화의 사유화를 인정할 경우, 자신들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매우 빈약한 유대감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으로는 이를 거부한다. 또한 만일 문화가 비성숙한 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 문화가 가진 예술적 혹은 문명적 가치를 비성숙한 이들에게만 승인하는 셈이 된다. 자유주의의 논리에 따르자면, 자유주의 담론

31) Ignatieff, M., “Nationalism and Toleration”, *The Politics of Toleration in Modern Life*, ed. Mendus, S., Durham, Duke Univ. Press, 1999, 102쪽.

32) Williams, R., *Keywords :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Oxford Univ. Press, 1983, 90쪽 참조.

속에서 문화는 도덕적·문화적 진보를 의미함과 동시에 도덕과 지적 자율성의 부재를 동시에 의미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순을 피하려면 이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독특하게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문화는 서구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일부분이지만, 자유주의적 주체는 성숙을 위해 이 문화를 벗어버리고, 세계시민주의의 입장에 서야 한다고 주장한다(272~278참조). 요약하자면, 자유주의는 문화를 갖지 않은 인간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은 문화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는 일종의 초문화라는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펼친다.

5.2 문화와 탈정치화

자유주의의 문화논리에 따르자면, 문화는 집단의 정체성과는 무관한 개인적 향유의 대상이고, 집단적 정체성을 문화 속에서 유지하고 있는 타자는 아직 미성숙한 인간들이다. 결국 자유주의에서 문화는 종교처럼 탈정치화 된다.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문화나 종교적 믿음을 소유할 권리를 가지며, 문화나 종교적 믿음이 개인을 소유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근본주의 사회에서는 문화나 종교가 주체를 지배한다(275참조). 자유주의는 문화를 탈정치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 체제를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문화는 특수한 것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특수한 것이 보편적인 것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치에 대한 종교의 종속적 지위를 정당화한다. 이러한 논리는 자유주의의 원칙이 문화적 제국주의의 형태를 띠지 않은 채, 보편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275참조). 왜냐하면 보편적인 것으로서 자유주의의 원칙은 특정한 문화를 형식상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자유주의의 질서는 그 자체로 편협성, 근본주의, 불관용, 개인화가 덜 된 인간들이 야기하는 위협과 동의어가 되어버렸다. 또한 자유주의는 법과 정치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이지만, 비자유주의는 종교와

문화에 의해 지배되는 미성숙한 사회로 규정된다.³³⁾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자유주의의 각종 행동은 야만적 행위와는 무관한 것이 되며, 비서구체제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서구 자유주의 체제의 확장을 정당화한다. 또한 비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자유주의의 침탈이 내포하고 있는 문화제국주의적 측면을 부인할 수도 있게 된다. 부시(G. W. Bush)가 2002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발언의 핵심은 관용과 불관용의 구분이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 세계를 영원한 평화로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강요할 생각은 없지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타협할 수 없는 요구를 공고히 하려는 것뿐이다. 그것은 법의 지배, 국가 권력의 제한, 여성에 대한 존중, 사적 소유, 언론의 자유, 평등한 정의 그리고 종교적 관용 같은 것들이다.”³⁴⁾ 부시는 법에 의한 지배와 폭력, 종교에 의한 지배를 대립하면서 비서구 사회를 평화와 관용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시에 따르면 비서구 사회는 관용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용의 대상이 아니다.

20세기 말에 관용에 대한 담론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그만큼 자유주의의 논리가 비자유주의의 정체성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관용은 헤게모니적인 사회문화를 위협하는 문화정체성들의 도전에

33) 인간 사회에서 문화가 갖는 중요성을 의식하고 있던 키피카조차도 문화에 관한 자유주의의 기본도식에 경도되어 있다. 그는 자유주의가 진정으로 자유를 강조한다면, 자유는 자신들의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문화사회에서 소수민족의 문화를 존중해야만 그들의 실제적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동시에 문화를 자유주의화 하는 기획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키피카, W., 장동진 외 3인 옮김, 『다문화주의 시민권』, 동명사, 2010, 193쪽 참조). 그래서 그는 “비자유주의적인 민족들을 자유주의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키피카, 같은 책, 56쪽). 브라운에 따르면, 키피카는 자유주의 사회 역시 특정한 문화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적 정치적 가치를 비자유주의 사회에 강요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278참조).

34) “President Delivers State of the Union Address,” United States Capitol,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29, January 2002(277~278 재인용).

대응하기 위하여 강조되었다.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차이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개인화함으로써 공적인 공간에서 표출되는 차이의 문제들을 사전에 제어하려는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미성숙한 존재로 낙인찍을 뿐만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삼는다. 결국 관용은 “자유주의의 보편성이 위협받는 순간에 이를 구원”(281)하려는 기제이다³⁵⁾. 그리고 이러한 기제의 작용은 문명 담론을 통하여 더욱 강화된다.

5.3 문명담론

현대 서구사회에서 자유주의 관용담론은 근본주의사회와 자유사회, 야만사회와 문명사회, 유기체적 사회와 개인화된 사회를 구분한다. 이러한 대립쌍들은 서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서구와 타자성을 구분한다. 특히 대립쌍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립쌍 중 하나가 언급될 때마다 거의 자동적으로 다른 대립쌍들을 떠올린다. 즉 근본주의는 야만성의 온상으로 이해되는 동시에 개인성은 근본주의 하에서는 억제되는 것으로 여겨진다(284~285참조). 이러한 논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문명담론이다.

관용은 근본적으로 비대칭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관용은 강자가 베푸는 미덕이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도 지배의 양상을 보이게 된다. 왜냐하면 관용의 실천은 일반적으로 고귀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고귀함의 실천의 대상, 즉 관용의 대상은 항상 그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기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나 자신을 가리켜 “나는 관용적인 사람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자신에게는 품위와 예의바름, 절제와 야량, 세계시민주의와 보편 및 폭넓은 시야를 안겨주지만, 주변 관용의 대상들은 품위 없고, 무례하며,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이들로서 선언한다(285참

35) 현재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문화의 갈등과 관련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초문화성이 그만큼 의심스럽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³⁶⁾ 이렇게 관용담론은 단순히 힘의 비대칭을 선언하는 것 이상으로 신분과 계급, 문명 간의 차이를 담론으로 생산한다. 결국 관용담론은 특정한 비서구적 행위 혹은 체제를 불관용적인 것으로 표지하는 동시에, 서구 문명의 우월성을 주장한다(286참조). 이 우월성에 기초하여 자유주의 체제는 자신 외부의 사람과 국가에게 취하는 비자유주의적 조치들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된다. 자유주의 체제는 자신의 문명 지위를 유지하면서 관용 불가능한 것으로 표지된 대상들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한다. 부시는 9/11 직후, “문명과 문화, 진보를 증오하는 이들과 타협할 수는 없다. 이들과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³⁷⁾고 대테러 전쟁의 당위성을 선언하였다. 문명의 햇불인 관용은 문명의 울타리 너머에 있으며 문명에 대립하는 이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287) 또한 2002년 2월 부시는 “인민을 야만적인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역사적인 전쟁을 수행할 기회를 잡았다”³⁸⁾고 선언하였다. 9/11직후의 언급과 2002년의 언급을 종합하면 부시는 문명과 야만을 구분하고, 야만에는 문명의 관용이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브라운에 따르면, 문명과 야만의 명확한 대립 구도 속에서 부시는 제국주의적인 군사조치를 은폐하기 위한 문명과 진보, 평화³⁹⁾라는 포장지를 찾았다(287참조).⁴⁰⁾

36) 이와 관련하여 브라운은 “관용을 설파하는 자유주의 철학자들은 막상 자신들이 관용의 대상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285~286)라고 풍자적으로 비판한다.

37) “President Says Terrorists Tried to Distrust World Economy,” Shanghai,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20 October 2001(286 재인용).

38) “President’s Remarks at ‘Congress of Tomorrow’ Lunch,” White Sulphur Springs, WV, Office of Press Secretary, 1 February 2002(287재인용).

39) 미국은 자신들의 군사조치의 명분과 부합할 수 없는 비문명적인 사건들을 자행할 경우 문제의 근원을 순전히 개인적인 탓으로 돌린다. 예를 들어 린디 잉글랜드 이병은 이라크 전쟁 포로 학대 사건으로 기소되어 3년 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를 개인적인 정신건강의 문제로 환원하려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반면 반대되는 사례가 있을 때는 이를 적의 본성이라는 말로 집단화 시킨다.

40) 문명담론에 기초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조치는 이슬람을 Terrorism으로 규정하고

6. 나아가며

갈등과 분쟁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결코 도덕적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⁴¹⁾는 왈쩌의 말은 매우 유의미하게 들린다. 특수한 정치적 목적에서 활용되는 관용은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미덕이 아니다. 이런 방식의 관용은 타자성에 대한 규정을 통하여 독단적인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차이를 지양될 수 없는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지배 체제를 정당화하는 헤게모니의 수단으로 사용되곤 한다.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신화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동질적인 민족으로 구성된 국내에서도 각자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 평화적 공존이 어려운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다문화사회나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공존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는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평화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회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차이로 인한 문제는 평화적 관용이나, 용인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제를 감추는 방식으로 유지되는 평화적 관용은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배태하고 있다. 정치적인 방식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인정투쟁의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인정투쟁이 반드시 무력적 충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해의 존재’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실제 현실에서 인정투쟁은 무력충돌 보다는 상호 이해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되기를 원하는 한, 우리는 대화할 수 있으며, 현실에서 소통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대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 대화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해하고 이해되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

이를 Militarism으로 대응하는 거대한 조직적 방식이다.

41) 왈쩌, 앞의 책, 17쪽.

다. 굳이 ‘이해하려는 선한 의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공존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자신이 말하는 만큼 타자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타자의 목소리를 배제하려는 관용의 탈정치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선한 미덕도 공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개인화되고 오용되면, 그 원래의 의미가 퇴색하며, 그만큼 우리는 불관용적이면서도 관용의 가면을 쓰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참고문헌

- 김문정, 「다문화사회와 관용, 그리고 비지배자유」, 『철학논총』 83, 2016. 1.
- 김용환, 『관용과 열린사회』, 철학과 현실사, 1999.
- 김형인, 『미국의 정체성』, 살림, 2003.
- 로크 J., 최유신 옮김, 『관용에 관한 편지』, 철학과 현실사, 2009.
- 볼테르, 송기형·임미경 옮김, 『관용론』, 한길사, 2001.
- 브라운, W., 이승철 옮김, 『관용』, 갈무리, 2010.
- 샌틀, M., 이창신 옮김,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09.
- 왈쩌, 송재우 옮김, 『관용에 대하여』, 미토, 2004.
- 우드워드, B., 김창영 옮김, 『공격 시나리오』, 따뜻한 손, 2004.
- 장은주, 「관용: 분열사회 치유를 위한 쉽고도 어려운 처방」, 철학과 현실, 2004. 12.
- 칸트, I., 이한구 편역,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칸트의 역사철학』, 서광사, 1992.
- 김리카, W., 장동진 외 3인 옮김, 『다문화주의 시민권』, 동명사, 2010.
- Ignatieff, M., “Nationalism and Toleration”, *The Politics of Toleration in Modern Life*, ed. Mendus, S., Durham, Duke Univ. Press, 1999.
- Mill, J. S.,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Utilitarianism, Liberty”, *Representative Government*, ed. Action, H. J. M. Dent, 1972.
- Scott, J. W., *The Politics of the Veil*, Princeton Univ. Press 2007.
- Voltaire, *Short Studies in English and American Subject*, Vol. XIX, part II, College of Du Page Instrutional Resources Center, 1901.
- Williams, R., *Keywords :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Oxford Univ. Press, 1983.

Critique of Political Tolerance

- Depoliticalization of Tolerance in Multiculturalism -

Kim, Sunkyu (Chung-Ang Univ.)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critically tolerance as a political rhetoric discussed in Wendy Brown's *Regulating Aversion: Tolerance in the Age of Identity and Empire*. It is not easy to find people that are against the practice of tolerance, which involves "recognizing and respecting others and their differences." The spirit of tolerance is not always expressed in ideal ways in the process of its practice because tolerance basically takes the form of accepting different values of others that do not correspond with one's own. Tolerance is acceptance based on refusal rather than complete acceptance, being an involuntary act to follow because it is "morally" requested. There are thus negative aspects inherent in the practice of tolerance including the further reinforcement of silent discrimination and conflict. Tolerance, in fact, appears in ways of "marking" differences of others and "reinforcing" them further. When it is misused politically, tolerance expresses the ideas of less hostility toward others and respect for all differences on the outside as well as simple connivance for those differences. In actuality, however, it can be abused to contribute to the further consolidation of old rule and superiority. The present study conducted philosophical analysis of utilization of tolerance in ways of managing otherness in suppressive methods.

Key words: Tolerance, Depoliticalization, Otherness, Autonomy, Culture

김선규 E-mail: unfil@naver.com

투 고 일	2016년 12월 24일
심 사 일	2017년 01월 26일
게재확정	2017년 02월 12일